

A Study on Role of Green Finance for Korea Environmental Industry's Export Competitiveness*

Dong-Han Jeon** · Jing-Wei Xu*** · Sung-Min Kang****

Abstract

Purpose: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Key Words: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Industry, Green Finance

Received : August 04, 2014

Revised: August 20, 2014

Accepted: August 29, 201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n Government (NRF-2009-413-B00011). This paper is a revision of the original paper which was pronounced at the Spring Academic Conference 2014 hosted by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 Researcher,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First Author

*** Master's Program,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Co-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목 차

I. 서 론 II. 한국 환경산업 경쟁력 분석 III. 환경산업 수출을 위한 녹색금융 현황	IV. 환경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제시 V. 결 론 참고문헌
--	--

I. 서 론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보존을 위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의 선순환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가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인류의 경제활동에 기인한 생태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을 지향하고 환경적으로는 보존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환경산업의 범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으나 각 국가들은 EBI 분류나 OECD 분류 중 하나를 수용하여 각국의 환경상황과 현실적 필요에 맞게 환경산업의 범주를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미국, 서유럽, 일본이 전 세계 환경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도 평균 5-10%의 성장을 보이면서 점차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에 이어 정보와 통신기술이 세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다면 다가오는 미래의 30년은 환경기술이 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산업은 어떤 전략산업보다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세계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환경기술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수요와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은 환경이슈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선진국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환경산업을 위한 선도적 노력은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글로벌 선진은행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관련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전담조직을 통해 여신제도와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해 온 것에 비하면 국내 금융권의 상황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환경산업이 IT, BT와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 3대 유망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 관련 녹색금융 정책의 지속성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녹

색금융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경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외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산업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환경산업의 해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문제점 및 역할과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앞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II. 한국 환경산업 경쟁력 분석

1. 연구배경

1) 연구목적

현재 지구 온난화와 자원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환경이 중요시 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탄소생산성¹⁾이 높은 상품들의 효율적인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탄소저감 기술이나 대체에너지와 같은 환경산업 분야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징 때문에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적인 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녹색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의 한 부분이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금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녹색금융은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원기준이 정해져야 됨과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활동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녹색금융을 서비스하는 금융회사에게도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한다.

2009년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녹색금융 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의한 17개의 신 성장 동력산업에 바탕을 두고 불과 몇 년 동안 금융권의 집중적 관심과 학계의 연구가 있어 왔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라져가는 일회성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으로 변해버린 것도 사실이다. 환경산업은 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국가 경제 정책과 투자에 의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환경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로서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등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의 오염문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환경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1) 탄소 1kg을 소비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의 지표.

금융의 역할을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환경산업과 녹색금융 분야를 구분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김정인(2002)²⁾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밝혔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국내 기업들이 환경산업과 여러 사업을 겸하고 있는 현실에서 규모의 경제성 및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과의 기술수준에 대한 격차의 존재,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열악한 환경 및 민·관의 제도적 지원의 부족에 따른 결과로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는 세계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 우리 정부의 기술개발과 시장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 환경관련 기술수준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그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윤이숙(2009)³⁾은 환경산업의 기술발전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 의해 환경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편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정부는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수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오염배출량 기준 제시, 표준기술의 도입, 환경자원 소비에 따른 비용 증가, 생산을 제약하는 환경규제의 강화와 연구개발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정부의 공공구매정책 역시 환경기술 발달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산업과 관련된 다른 연구로는 이장우 외 1인(2014)⁴⁾, 전동한 외 1인(2014)⁵⁾, 김종석 외 1인(2010)⁶⁾ 등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여기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녹색금융과 관련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기형(2010)⁷⁾은 녹색금융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면서 또한 녹색성장과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전준규(2013)⁸⁾는 우리나라에 있어 녹색금융의 필요성을 녹색성장 지원, 환경위험관리, 새로운 수익창출 등으로

2) 김정인,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 가능성”,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2, pp.127-128.

3)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JPI정책포럼』, 제18권, 제주평화연구원, 2009.12, pp.4-5.

4) 이장우·김민재,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사례: 환경-경쟁전략 적합성 및 협력-경쟁전략 적합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中小企業研究』, 제36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pp.45-67.

5) 전동한·강상구, “녹색물류 효율화를 위한 한국 물류정책의 고찰”, 『물류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14.6, pp.1-32.

6) 김종석·이윤채,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환경상품의 수출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6, pp.53-106.

7) 이기형, “녹색금융의 개념과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7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10, pp.45-46.

8) 전준규,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5권 제2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3.2, pp.177-188.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박복재·문영수(2013)⁹⁾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분석을 세계시장 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Rate: IMS),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등 4가지 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녹색금융과 관련되는 연구는 2013년 이전까지 더욱 활발하였고, 여기에는 이용근 외 1인(2012)¹⁰⁾, 김은정(2012)¹¹⁾, 강유경 외 1인(2011)¹²⁾, 노용환(2011)¹³⁾ 등의 많은 내용이 있다.

2. 환경산업 정의와 범위

환경산업의 분류체계와 범위는 각 국가나 기관마다 다르지만 최근 환경산업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1) 정의

환경산업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은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적 저감, 사후적 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이나 설비, 서비스를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환경산업은 환경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용역, 서비스업, 설계, 시공업 등의 환경보호와 연관성을 가지는 환경오염 방지산업·폐기물처리산업·오염물질측정대행업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공해방지산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¹⁴⁾ 제2조에서는 환경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을 위한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
- 9) 박복재·문영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6, pp.354-361.
 10) 이용근·김양태, “한국과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2.5, pp.137-156.
 11)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0호, 법무부, 2012, pp.71-109.
 12) 강유경·이수열, “AHP를 이용한 녹색금융활동의 추진 우선순위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제24권 제3호, 대한경영학회, 2011.6, pp.1375-1391.
 13) 노용환,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식연구」, 제9권 제2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1, pp.3-31.
 14)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0호 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28일 법률 제1061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 범위

환경기술은 일반적으로 사후처리기술과 사전예방기술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사후처리기술이란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을 사후에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및 환경오염 방지용 시설이나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사전예방기술이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감소시키거나 환경과피 예방 및 환경을 더욱 좋게 개선하는 등의 기술을 말한다.¹⁵⁾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환경산업도 크게 사전적 환경산업과 사후적 환경산업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편적 의미의 환경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적처리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삼는 기업과 더불어 폐기물재활용, 환경오염 계측기나 환경오염 감시장치 생산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반적 범주의 산업을 환경산업으로 이해하여 왔지만 최근 환경산업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OECD에 의한 환경산업 분류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오염관리와 물 공급 등 자원관리 분야가 환경산업의 범주였다면 현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영향과 지구환경의 관심증가에 따라 기존의 환경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그린카, 오염복원, 그린상품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환경산업의 분류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치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산업자체의 수급보다는 환경정책과 규제 등 시장 외적요소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계, 전자, 화학분야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산업으로써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환경산업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체를 위한 수출실무 가이드북”, 2009.12, p.2.

<표 1> 환경산업의 분류

구분	분야	분류
OECD	오염처리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복원 및 정화, 소음 및 진동저감, 측정, 분석, 검사
	청정	오염발생저감
	자원관리	수자원관리,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EBI	서비스	분석서비스, 수처리, 고체폐기물/유해폐기물 관리, 정화 및 방지서비스, 컨설팅/엔지니어링
	설비	수처리 설비, 분석장비 제조, 대기오염 제어설비, 폐기물 관리시설, 공정 및 방지기술
	자원	수자원, 자원재생, 친환경에너지자원
한국은행	오염원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토양/수질보호, 소음/진동방지, 방사선피해방지

주: EBI(Environment Business International Inc.): 미국 환경컨설팅 연구기관.

한국은행은 오염원별로 구분한 내용임.

자료: 김정인,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가능성”,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2, p121; 박복재 · 문영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제15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6, p.351. 내용을 수정하였음.

3.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 분석

1) 한국 환경산업 현황

환경산업은 인류의 경제활동에 기인한 생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1996년 474조원에서 2015년에는 1,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한국 환경산업의 투자현황을 공공·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 기준 공공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의 3.1%인 4,262억 원이 환경산업에 투자되었으며 투자규모에 따른 우선순위의 내용으로는 친환경공정·소재·제품분야, 폐기물관리·자원순환분야, 물관리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연간 총투자액 중 13.7%가 환경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원순환분야, 물환경·상하수도분야, 기후·대기분야 순으로 투자되었다.¹⁷⁾ 민간부문의 환경산업에 대한 매출규모는 폐기물종류별 효과적 처리기술, 친환경자동차기술,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 재이용기술 순으

16) 윤이숙, 전게서, pp.2-3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년 환경기술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11, p.5.

로 나타났다.

2011년도 한국의 환경산업분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친환경자동차기술, 대기오염물질 처리선진화기술, 친환경소재 개발기술 순으로 수입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별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베트남 등 환경산업분야 신흥국가들의 경우 원료 및 저가의 부품수입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하수재이용기술, 폐기물 종류별 효과적 처리기술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제품 환경성 향상기술, 친환경자동차기술, 친환경소재개발기술 순으로 수출하였다. 국가별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표 4> 참조)

<표 2> 2011년 주요 국가별 한국 환경산업 수입액

(단위: 억원)

국가	내용	수입액
중국	대기오염물질처리 선진화기술	88.0
	지속가능 물 환경 관리기술	25.0
	폐수 방류수 고품질화 및 생태독성 저감기술	0.1
	친환경소재 개발기술	12.6
	계	125.7
일본	대기오염물질처리 선진화기술	11.1
	친환경자동차기술	64.0
	지속가능 물 환경 관리기술	0.4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 재이용기술	13.8
	제품 환경성 향상기술	2.9
	친환경소재개발기술	2.1
	계	94.3
베트남	친환경자동차기술	80.0
	계	80.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년 환경기술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11, pp.45-46. 내용을 재작성함.

<표 3> 주요 국가별 한국 환경산업 수출액(2011년)

(단위: 억 원)

국가	내용	수출액
중국	대기환경 통합관리기술	2.5
	대기오염물질 처리 선진화기술	7.8
	친환경자동차기술	86.5
	지속가능 물 환경 관리기술	2.0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기술	1.4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 재이용기술	22.1
	폐수 방류수 고품질화 및 생태독성 저감기술	1.7
	폐기물 종류별 효과적 처리기술	32.0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기술	1.5
	제품 환경성 향상기술	97.0
	친환경 소재 개발기술	14.5
	오염저감 공정/설비 개발기술	4.0
	오염물질 측정장치 및 환경네트워크/시스템구축기술	1.5
	계	274.4
일본	대기오염물질 처리 선진화기술	40.4
	친환경자동차기술	6.0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 재이용기술	0.8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기술	1.3
	폐기물감량화 및 수거관리기술	0.7
	폐기물종류별 효과적 처리기술	3.0
	제품환경성 향상기술	23.0
	친환경소재 개발기술	112.6
	오염물질 측정장치 및 환경네트워크/시스템구축기술	1.5
계	189.2	
미국	대기환경 통합관리기술	4.3
	대기오염물질 처리 선진화기술	40.5
	친환경자동차기술	11.0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기술	0.6
	제품 환경성 향상기술	52.2
	친환경 소재 개발기술	20.0
	오염물질 측정장치 및 환경네트워크/시스템구축기술	4.0
	계	132.6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게서, pp.78-79.

<표 4> 한국 환경산업 수출입액 증감현황(2011년)

(단위: 억 원)

국가	수출	수입	증	국가	수출	수입	감
중국	274.4	125.7	148.7	호주	1.4	12.3	-10.9
필리핀	96.1	0.0	96.1	네덜란드	3.1	11.5	-8.4
일본	189.2	94.3	94.9	스위스	0.0	5.0	-5.0
미국	132.6	49.3	83.3	베트남	75.8	80.0	-4.2
이라크	67.8	0.0	67.8	스웨덴	0.0	4.0	-4.0
브라질	47.2	0.0	47.2	덴마크	0.0	3.4	-3.4
터키	45.0	0.0	45.0	핀란드	0.0	2.0	-2.0
인도네시아	50.5	10.0	40.5	아이슬랜드	0.0	1.0	-1.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게서, pp.78-79 내용을 재작성하였음.

2) 한국 환경산업 경쟁력 분석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우선순위별로 구분하고 환경산업의 부문별 내용을 지식무형자산과 매출, 수출, 수입, 특허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표 5>,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한국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 분야별 우선순위

경쟁력 순위	지식무형자산	부문별 내용			특허
		매출	수입	수출	
1 순위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율 향상	그린 생산·소비 행태 촉진	친환경자동차	지능형상수도시스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영향 모니터링
2 순위	유용 폐자원 재활용	비점오염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처리 선진화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	에코 효율화 사회 시스템 구축
3 순위	Non-CO2 온실가스 저감	지역 및 국가간 대기환경 재난·재해관리	친환경 소재 개발	지속가능 물 환경 관리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
4 순위	폐기물 감량화 및 수거관리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	지속가능 물 환경 관리	대기환경 통합관리	그린 생산·소비 행태 촉진
5 순위	친환경자동차	물 환경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상수원 보호	오염물질 측정 장치 및 환경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기술, 미래주도 폐자원 에너지화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게서, p.89. 내용을 재작성하였음.

<표 6> 한국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종합적 우선순위

종합적 우선순위	내용
1 순위	생태계 감시 및 보전 통합시스템
2 순위	그린 생산·소비행태 촉진기술
3 순위	친환경자동차기술
4 순위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기술
5 순위	지속가능 물 환경관리기술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게서, 2013.11, p.90. 내용을 재작성하였음.

Ⅲ. 환경산업 수출을 위한 녹색금융 현황

1. 녹색금융 개념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선진 외국보다 늦은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이후이며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지수에 머물러 있다. 녹색금융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며 둘째는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 심사·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이다.¹⁸⁾

국내에서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다음의 3가지 범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첫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금융이다. 둘째, 기업과 개인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해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금융이다. 셋째, 탄소시장 형성과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금융기관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¹⁹⁾

18) 이기형, “녹색금융의 개념과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7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10, p.43.

19) 전준규,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5권 제2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3.2, p.172.

<표 7> 녹색금융관련 개념

구 분	내 용
녹색산업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녹색사업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전문기업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
녹색인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녹색예금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요건을 갖춘 예금
녹색채권	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당해 채권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
녹색금융	녹색예금·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
준녹색금융	자금을 조성하여 준녹색사업·준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
투자사업 관련계좌	은행의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써 관련 사업자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은행이 사업의 성격상 관련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좌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2010년 6월 30일 시행 내용을 저자정리.

2. 녹색금융 최근 동향

1) 녹색금융 정책 동향

1980년 미국에서 금융기업에게 대출기업의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비용에 대한 환경책임을 부담시키는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법의 제정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와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으로 녹색금융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기인하여 금융권은 창조금융이 미래의 혁신적 수익창출이라고 주장하여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경우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녹색금융은 2009년부터 금융권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출시하였다(<표 8 참조>). 당시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과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는 녹색금융에 대한 홍보 및 상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표 9 참조>). 또한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도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추진하면서 2015년까지 한국을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지만 동북아 금융허브론 역시 정부 정책의 연속성 부족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추진 내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²⁰⁾ 결국 녹색금융은 정권과 함께 사라지는 일회성 금융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표 8> 이명박 정부 17개 부문별 신 성장 동력산업

분야	내용
녹색기술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분야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및 관광산업

자료: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17개 부문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저자가 정리.

<표 9> 연도별 출시된 녹색금융상품

(단위: 개)

구분	예·적금	카드	기업대출(일반)
2006년	1	-	-
2007년	2	1	-
2008년	1	4	6
2009년	13	12	17
2010년	3	4	4
2011년	4	9	6
2012년	3	2	1

자료: 녹색금융종합포털(www.green-finance.or.kr) 2014년 4월호 내용을 정리.

20) 최승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 연구』, 제1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08. pp.245-252.

2)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제정

2010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녹색예금·녹색채권의 개발·판매 관련 고객보호,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²¹⁾을 제정하였다. 이는 2010년에 녹색인증제 등을 도입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서 녹색금융관련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차후 모범규준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및 은행의 건진성 제고와 함께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모범규범을 기초로 각 은행들은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녹색금융에 의한 환경산업 수출

1) 배경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선포와 함께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 및 수출산업 측면에서 녹색금융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시설 플랜트와 같은 환경산업의 수출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산업의 참여자는 금융을 책임지는 참여자와 수주를 받는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2) 수출 환경산업 개발

환경산업에 대한 개발은 시공사나 기술업체 및 운영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계약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게 된다. 입찰참여의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개발의 경우 개발자가 사업기획 및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 시공 및 운영회사, 기술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금융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기술 업체가 사업개발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개발자 중심의 환경산업 수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도 사업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²²⁾

21) 제9999호,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타, 2010. 11. 3. 제정.

22)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2009, pp.20-22.

3) 녹색금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의 수익금을 되돌려 받는 금융대출 방법이다.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해당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입과 자산에 대출의 범위를 국한시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국형 자금조달 방법이다. 조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자신이 담보가 되어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므로 차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가 되어 사업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파이낸싱 이후에도 시공 및 준공, 운영과정에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사업지연 및 중단, 현금부족 상황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을 끌고 나가는 사업주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가 보증을 감수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환경사업체의 경우 파이낸싱을 위해 규모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되었고 금융기관도 이러한 녹색금융 정책의 영향을 받아 소규모 환경사업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결국 사업주가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법은 자본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것과 자체신용에 따른 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모두를 조달하는 것이다.

4) 환경산업을 위한 녹색금융 조달 방식

환경산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은 자본금과 차입금에 의해 이루어지며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환경산업 자금조달 방식

구 분	내 용
자본금	자체 자본금 조달(유보자금, 자본증자, 차입금)
	전략적 투자자 모집
	재무적 투자자 모집
차입금	상업금융
	공공금융, 수출금융, 지원정책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수출금융 가이드북”, 2009, p.3. 그림을 수정.

(1) 녹색금융 자본금의 조달

자본금의 조달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대출상품이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녹색기술 인증제도 및 녹색기술기업 확인제도 등이 있으며 대출조건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녹색금융에 의한 사업의 자본금 조달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2) 녹색금융 차입금 확보

① 수익성사업 차입금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녹색금융 대출상품은 태양광, 풍력,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들이지만 이들 상품은 국내사업 중심의 정책금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활용이 용이하지는 않다. 차입금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금융기구를 통한 직접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능하며 보험이나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기준은 수출목적 달성을 수 있는 국내 기술 및 설비의 수출비중, 국내 시공회사의 참여, 국내 투자자의 투자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수출지원과 일반 투자은행 관점인 수익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자금 확보는 대외적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수출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② 공공성사업 차입금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한 차입금으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가 대표적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는 현물 및 현금, 프로젝트형 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기술협력 분야가 가능하며 탄소배출권 사업을 포함한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사업의 경우에는 활용성이 높지만 중규모 이상의 환경사업의 경우 금융에 대한 부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를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보건, 교육, 에너지, 수자원, 환경기초시설 등에 지원되었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자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 대상국가의 재무부급 이상의 정부부처가 공식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국가가 한정되어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른 지원국가 제한 및 상업성 사업에 대한 원조자금 금지 등의 조건을 확인해

야 한다.

그 외의 공공자금 조달방안으로 UN 등의 국제기구 분담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관의 국제기구 출자금을 통한 금융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²³⁾

5) 환경산업 수출 금융정책

현재까지 녹색사업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녹색금융 지원정책은 간접적인 정책과 직접적인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⁴⁾

(1) 간접적 녹색금융 지원정책

성장단계의 녹색사업에 대해 녹색프로젝트 인증을 통하여 금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해외 녹색프로젝트를 인증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있고 녹색프로젝트 인증을 받더라도 녹색펀드 및 녹색예금 등을 통한 금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직접적 녹색금융 지원정책

성숙단계의 녹색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녹색기업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유자, 그린 ODA 확대를 통한 녹색수출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²⁵⁾

IV. 환경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제시

1.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위한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금융기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정책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문제

(1) 환경문제 및 녹색금융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선진국 주요 은행들의 경우 환경부문의 리스크관리를 일반화하여 투자결정 및 범위를 결

23) 박복재 · 문영수, 전계서 pp.350-351.

24)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2009.7.6.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수출금융 가이드북”, 2009, pp.1-5.

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환경산업에서의 녹색기술 및 환경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기관의 환경책임 부담에 대한 제도에 관하여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고는 있지만 관련 산업의 경제성 및 경쟁력 등의 미검증과 여신실적의 저조로 인하여 금융상품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2)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환경산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들은 작게는 비용이 발생하고 크게는 투자가 필요한 활동들이다. 또한 초기에는 투자가 집중되고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산업은 특성상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무리이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은 새로운 영역의 벤처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성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과 투자회수기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쉽지 않다. 2011년 녹색성장펀드로 분류되는 29개 펀드 중 1개 펀드만 1.21%의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6.2%에서 44.4%까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²⁷⁾

(3)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부족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미흡

환경산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나 녹색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 평가의 역량 부족 등 전문성의 결핍과 인프라 구축의 미흡으로 일반 금융기관이 자금을 유입해주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녹색금융 지원제도, 기업의 환경요소에 관한 정보공개 체계 및 녹색인증제도, 녹색금융과 환경에 대한 은행 대부자의 책임범위 등 관련 규정들이 현재 미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DB도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해외 선진 금융기관들에 비해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미흡

해외 금융기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녹색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의 부족,

26)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2009, p.25.

27) 강유경·이수열, “AHP를 이용한 녹색금융활동의 추진 우선순위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대한경영학회, 2011.6, pp.1385.

녹색금융 제공에 대한 구속력 부재 등의 이유로 녹색금융상품 설계를 위한 녹색금융지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 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다.²⁸⁾

(5) 향후 녹색금융 상품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녹색금융이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두되자 녹색금융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였지만 지금은 녹색금융에 대한 상품의 홍보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2009년 4월 금융사들이 모여 녹색금융협의회까지 만들었지만 2012년 4월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권의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부작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녹색금융정책의 문제

(1)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정권에 의해 사라지는 일회성 정책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대통령 자신에 의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 의 뜻을 피우는 것이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²⁹⁾

한 예로 박근혜 정부에서 IP금융은 창조금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도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시절의 녹색금융과 비교하여 그 상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녹색금융은 전 지구적 관심대상인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수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정권에 의해 사라지는 일회성 정책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2) 재정을 통한 지원의 어려움

환경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운영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확충 등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환경산업은 초기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이나 기업이 적은데다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고 오히려 엄격한 요건

28)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2009, pp.28.

29)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

등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을 통한 녹색금융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³⁰⁾

(3) 녹색금융정책에서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

녹색금융정책에서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녹색금융정책이 쉽게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별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자본과 노동이 국가의 특정 산업분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 재정지원의 중복문제는 물론 시장의 왜곡과 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1) 금융기관을 통한 역할

(1) 환경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대

녹색금융을 통한 환경산업이 발전하여야 한다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중요하며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녹색소비자가 출현하게 되고 환경관련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녹색금융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경제적 효과 및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이 단기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2) 녹색금융을 통한 수익 및 녹색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수익성 관점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업의 자금 확보는 안정적 자금을 일반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환경산업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위해 등장한 녹색금융은 형성 초기부터 정책적인 지원에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의미로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간자본은 수익성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³¹⁾

(3) 기업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녹색금융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정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녹색정보 공개, 신용평가, 녹색회계 등 제도적 인프라

30)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2009, pp.19-20.

31) 노용환,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식연구」, 제9권 2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1, pp.20-21.

를 정비하여야 하고 녹색투자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녹색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금융 상품과 관련된 위험관리 및 투자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그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비한 인적 인프라도 정비하여야 한다. 즉 녹색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녹색기술과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³²⁾

(4) 다양한 녹색금융상품 개발

국내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상품은 아직 초보단계로써 금리우대 기업대출 상품과 기관의 정책자금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차량구입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소매 금리우대 금융상품으로 대상 범위가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상품개발에 참여하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개별 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각각 개발하여야 하고 또 이를 중심으로 환경산업 관련 리스크 및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금융보증제도, 공적연기금의 활용, 녹색리서치 강화 등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5) 녹색금융상품의 지속 필연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 공감대 형성 필요

정부가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인식을 일반 국민과 금융기관에 홍보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녹색금융은 환경산업의 특성상 장기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금융기관들의 녹색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는 불가능하다.

2) 녹색금융정책을 통한 역할

(1)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녹색금융을 통한 일관된 정책유지

무엇보다 환경과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하여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녹색금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일관된 환경산업정책으로 건전한 녹색소비자를 양성

32) 강유경 · 이수열, “AHP를 이용한 녹색금융활동의 추진 우선순위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제24권 제3호, 대한경영학회, 2011.6, pp.1383.

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기술발전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2) 환경산업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녹색인증과 세제혜택의 요건 및 범위 확대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녹색기업 지정 및 금융권의 녹색금융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녹색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관련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녹색투자기관의 국내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녹색투자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³³⁾ 또한 환경기업의 R&D 단계에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자금지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녹색기업들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R&D 단계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이러한 빠른 발전과 성장을 보이는 수출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PF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3) 녹색금융정책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환경산업의 녹색성장 자체가 대부분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기반이 되는 녹색금융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대부분 역사가 짧고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다 보니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업성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다. 금융회사의 경우 또한 환경산업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사업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이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녹색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평가 등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녹색금융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에만 의존하는 녹색금융보다는 민간자본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녹색금융정책이 필요하다.

V. 결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주요 이슈이다. 녹색성장은 2005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33) 노용환, 전게서.

회(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빈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대부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였으나 90년대 초반부터 환경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자체적으로 본격화되었다. 1994년 정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기술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법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는 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부터 환경산업 관련 상품 54개 품목을 교역할 때 관세율을 5%로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낮아지면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의 APEC 회원국 상대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인 데 반해 환경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인 것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환경산업의 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 환경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금융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진 일부 금융기관에서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밀려 현재는 녹색금융정책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부문의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지적하면서 본 논문 연구의 주제인 환경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문제점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녹색금융의 문제점을 금융기관의 문제점과 녹색금융정책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지적하면, 금융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경문제 및 녹색금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흡 둘째, 녹색금융의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셋째,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부족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미흡 넷째, 해외 선진 금융기관들에 비해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미흡 다섯째, 향후 녹색금융상품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되겠다. 다음으로 녹색금융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정권에 의해 사라지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점 둘째, 재정을 통한 지원의 어려움 셋째, 녹색금융정책에서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금융기관과 녹색금융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먼저 금융기관을 통한 역할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대 둘째, 녹색금융을 통한 수익 및 녹색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셋째, 기업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녹색금융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의 구축 넷째, 다양한 녹색금융상품 개발 다섯째 녹색금융상품의 지속 필연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등이 되겠다. 녹색금융정책을 통한 역할로는 첫째, 환경산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녹색금융을 통한 일관된 정책유지 둘째, 환경산업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녹색인증과 세제혜택의 요건 및 범위 확대 셋째, 녹색금융정책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있겠다.

결론적으로 전 지구적 관심분야에 해당되는 환경과 지구온난화, 오염 등과 관련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녹색금융과 융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진다면 양자 모두의 발전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산업과 녹색금융은 구조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한국재정학회, 2009.
- 강유경 · 이수열, “AHP를 이용한 녹색금융활동의 추진 우선순위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대한경영학회, 2011.
- [Kang, Yu Kyung and S. Y. Lee, “A Study on the Priorities of Green Finance Practices Using AHP Method,”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4, No.3,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1.]
- 곽대중, “무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9.
- 김명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이슈』, KDB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2013.
-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 법률연구』, 제60호, 법무부, 2012.
- [Kim, Eun Jeong, “A Study on Activating Green Finance under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s Allowances - Focusing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Vol.- No.60, Ministry of Justice, 2012.]
- 김장성, “국제환경협약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Kim, Jang Seong, “A Study on the Effects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n the Export Industries of Korea,” Doctor’s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University of Incheon, 2012.]

- 김정인,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 가능성”,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2.
- 김종석 · 이윤채,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환경상품의 수출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 [Kim, Jong Seok and Y. C. Lee, “The Role of Export Insurance for the Export of Green Growth Industry : Focused on Analysis of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Good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Vol.11, No.2,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2010.]
- 녹색금융종합포털, www.green-finance.or.kr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2009.
- 노용환,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식연구』, 제9권 제2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1.
- [Noh, Yong Hwan, “An Analysis of the Role and Performance of Green Technology Finance,” *Journal of Knowledge Studies*, Vol.9, No.2, Institute for Finance & Knowledge, 2011.]
- 노희진, 『녹색금융론』, 북큐브네트웍스, 2010.
- 문영수 · 박복재,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Moon, Young Soo and B. J. Park,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Digital Products with Major FTA Partners - Focusing on the USA and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3, No.2, Korea Associat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2011.]
- 박복재 · 문영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Park, Bok Jae, and Y. S. Moon,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5, No.2, Korea Associat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2013.]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JPI정책포럼』, 제18권, 제주평화연구원, 2009.
- 이기형, “녹색금융의 개념과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7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10.
- [Lee, Gi Hyoung, “A Study on Concept of Green Finance and on Measures for its Revitalization and Progres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17, Korean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2010.]

- 이용근·김양태, “한국과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2.
- [Lee, Yong Keun and Y. T. Kim, “Comparative Study on the Green Financial Policy in Korea and Japan,” *E-Trade Review*, Vol.10, No.2,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2012.]
- 이장우·김민재,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사례: 환경-경쟁전략 적합성 및 협력-경쟁전략 적합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中小企業研究』, 제36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 [Lee, Jang Woo and M. J. Kim, “The Impact of Strategic Fi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on the Performance of SMEs : An Empirical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Supplier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6, No.1,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014]
- 임기흥·전지현, “국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방안”, 『한몽경상연구』, 제24권 제2호, 한몽경상학회, 2013.
- [Yim, Ki Heung and Q. Z. Xuan, “The Study on Activation Plan of the Environmental-Friendly Automobile Industry in Domestic Area,” *Korea Mongolia Economics and Business Studies*, Vol.24, No.2, Korea · Mongolia Economics & Business Association, 2013.]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2010. 6. 30. 시행.
- 전동한·강상구, “녹색물류 효율화를 위한 한국 물류정책의 고찰”, 『물류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14.
- [Jeon, Dong Han and S. G. Kang, “A Study on Korea Logistics Policy for Green Logistics Efficiency,” *KOREA LOGISTICS REVIEW*, Vol.24, No.2, Korea Logistics Research Association, 2014.]
- 전용일·구정환, “녹색금융의 자본도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금융연구 work ing paper』, 한국금융연구원, 2011.
- 전준규,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5권 제2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3.
- [Jeon, Jun kyu, “A Study for Vitalization of Green Finance in Korea,”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Vol.35, No.2,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1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Jung, Sun Seop, “Legal Structure of Green Finance,” *Environmental Law Review*,

- Vol.31, No.1,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2009.]
- 최승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08.
- Choi, Seung Pil,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for the Formation of Financial Hub in the Northeast Asia - Centered on Financial Regulation Laws,”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1, No.1,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2008.]
- 최준환, “중국의 녹색성장발전 추진에 따른 녹색금융 연구-SWOT분석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체를 위한 수출실무 가이드북”, 200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년 환경기술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수출금융 가이드북”, 2009.
- 한기주, “DDA 환경상품 협상과 세계 및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구조 분석”,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6.
- Kim, Il Chung and M. S. Choi,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22, No.4, 2013.
- Tim Baines, “Integr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Voluntary Initiativ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16, No.1, 2009.
- Matthew J. Kiernan, “Investing in a Sustainable World: Why Green Is the New Color of Money on Wall Street,” *AMACOM*, 2009.
- Patricia Birnie and Alan Boyle,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Roger McCormick, “Legal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Steven Lydenberg, “Corpor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Guiding the Invisible Hand,” *Berrett-Koehler*, 2005.

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전동한** · 서정위*** · 강성민****

국문초록

연구목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 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기후변화, 환경오염, 환경산업, 녹색금융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413-B00011). 이 논문은 2014년 한국국제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